

내달 개막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사드 직격탄

중 관광객 1000명 참석 않고 광장무 공연 취소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정율성 음악제도 위태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프린지페스티벌'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중국의 보복조치 우려(광주일보 3월 6일자 1면)가 광주·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린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에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장무(廣場舞)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전면 취소됐다. 특히 중국 여행사를 통해 난징(南京)과 칭다오(靑島), 산둥(山東)성 등에서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이미 모집된 상태였으나,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를 내리면서 관광객 방문도 어렵게 됐다.

이들 유커들은 당초 배편으로 입국해 광주와 전남, 서울 등지에서 4박5일 일정으로 관광·쇼핑을 즐길 예정이었으나, 사드 약재에 없던 일이 됐다.

광주시는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매월 10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유치할 계획으로, 한해 1만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예상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남경시 중국 여행사와 중국청취유청소년교류센터, 연운항웨리사, 린이국제여행사, 한국대학연맹협회, 석도웨리사와 각각 '중국 광장무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의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있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프린지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광장무 공연을 펼치게 하고, 참가팀을 대상으로 광장무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팀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었다. 특히 중국 친화도시 이미지 조성과 광주를 중국 내에 적극 알리기 위해 중국 최대 공휴일인 10월 국경절 연휴기간(10월1~10월8일) 중에는 세계 기념사북 기록에 도전하는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프린지페스티벌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국 정부의 사드 강경 모드로 어려움이 많지만 광장무 관광객이 한 번에 5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어 그 부분에 행정력을 모아왔는데 안타깝다"며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일 우호도시인 우한(武漢)

시와의 15주년 기념행사와 올 여름 정율성 음악제와 같은 교류 행사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사드 문제를 놓고 한중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최근 단위사업별 협업 추진 상황 보고회까지 가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광주시가 중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은 '광주 청화(淸華)포럼'을 비롯해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운영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 ▲차이니스 코너 유치 ▲한중 청년네트워킹 구축 ▲정율성 브랜드를 활용한 한중 음악축제 ▲중국 대학원생 유치 ▲중국 비즈니스스쿨 운영 ▲한국산 김치 수출시장 개척 ▲의료관광객 유치 등이 주요 사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바퀴 논란 확산

市 이달중 조달청 의뢰 방침에

국민의당 시의원 조달입찰 반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운행할 전동차 바퀴를 놓고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광주시가 조달청에 의뢰하기로 한 도시철도 2호선 차륜방식 결정에 반발해 관련 예산안 삭감 등을 언급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의 차륜방식 등을 결정해 줄 것을 조달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 차륜방식은 고무바퀴와 철제바퀴를 놓고 그동안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논의했으나 결정하지 못했다.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에 따라 두 형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의 업체를 선택하

로 하고 이를 조달청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하고 조달입찰 의뢰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시에 조달 입찰 결정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시가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조달 입찰을 강행하려고 하자 시의회 산건위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조달입찰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조달 입찰 의뢰 방침을 강하게 반대했다.

조만간 의원 회의를 소집해 차륜방식 결정과 함께 열차운영시스템 발주 방식 등 도시철도 2호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산건위에서 제기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의정 지원요원

15명 채용 계획

편법 유급 보좌관 논란

전남도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요원(15명) 선발을 위한 채용공고를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당 최장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길게는 5년까지다.

전남도의회는 1인당 연봉 3000만원 꼴로 모두 4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상임위원보 일정 수를 분산하는 등 배치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임명조사 요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의정활동 지원요원 등 명칭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왔다. /이종행기자golee@



추방 당한 강철 북한 대사 (왼쪽)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당한 강철 주말레이 북한대사가 6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北, 탄도미사일 4발 동해상 발사

軍 "ICBM 가능성 작아"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연재체인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관련기사 8면>

이들은 1천km 이상 비행했고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 거리는 약 1000여km"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4발로 추정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4발은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75~93도 동해 방향으로 발사됐고, 비행 최고고도는 260여km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거리를 정사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육군 준장)은 이날 발표한 '북 미사일 발사했다'며 "비행 거리는 약 1000여km"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4발로 추정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7월부터 자체 '경기종합지수' 발표

광주전남연·전남대 등 참여

지역실정 맞는 경제정책 수립

전남도가 지역 경제구조 특성을 반영한 경기종합지수를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전국 경기지수로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남 경

기종합지수 지표 등을 마련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지역 경기지수를 토대로 주력산업별 경제동향, 인구, 소비, 고용, 건설, 향토물류 등 지역 경제 동향을 분석 및 예측하겠다는 것이 다.

지수 개발은 광주전남연구원도 주도했으며 고려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참여했다. 지수는 5개 부문 78개 지표로 구성

된다. 공공업 생산·재고·출하지수, 제조업 생산·재고·출하 등 생산 및 투자 분야 지표가 38개로 가장 많고 이어 무역수지, 수입액, 수출액, 선박해양구조물 수입액·수출액 등 무역 분야 지표가 1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 등 소비 및 물가가 10개, 예금·대출금, 어음부도율, 제조업 자금사정 등 금융통화 지표 8개, 경제활동 참가

율, 취업자, 청년취업자, 상용근로자 등 고용 지표 5개 등도 포함됐다.

최종보고회와 통계청 승인을 거치면 오는 5~6월 시범 운용 뒤 오는 7월부터 매달 공표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이 자체 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부권 조선업, 동부권 석유·화학산업 등 권역별 주력 업종 현황과 농도로서 특징을 충실히 반영한 경기지수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기업 평가' 최우수상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과 사업 성과를 분석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것이다. 평가 분야는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 사회적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이다.

전남도는 기업 윈스톱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분산 운영해온 사회적경제 지원조

직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한 것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 비율이 70% 이상으로 타 시·도보다 높았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저금리를 겪는 영세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 '사회적기업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용이 협업 우수사례로 추가 가점을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대전망!

흔들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강의내용

- ✓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수도권 및 지방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광주

- 일시 : 3월 8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